

알림

나가노현 파트너십 신고 제도가 시작됩니다

나가노현에서는 성적 소수자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상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나가노현 파트너십 신고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현재 일본 인구의 약 9%가 성적 소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성적 소수자와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배려심 없는 언동이나 태도에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겠죠. 이 제도는 이러한 성적 소수자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속 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쌍방, 혹은 어느 한편이 성적 소수자인 경우 서로를 인생의 파트너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약속한 두사람의 관계를 현에 제출함으로써, 현이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에 관하여

2023년 7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은 아래의 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 홈페이지

<https://www.pref.nagano.lg.jp/jinken-danjo/sogi/partnership.html>



상담

무료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나가노현 다문화 공생 상담센터에서 외국인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예약필요), 행정서사에게도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일정	시간	장소
시오지리시	6월 23일 (금)	10:00~15:00	보건복지센터
마츠모토시	8월 22일 (화)	10:00~15:00	M-wing
우에다시	9월 8일 (금)	10:00~15:00	우에다시청 본청사
코모에시	9월 13일(수)	10:00~15:00	코모에시 시민 상담 센터
나카노시	9월 29일 (금)	10:00~15:00	나카노시민회관

무료



※일정이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나가노현 다문화 공생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7 월은 다문화 공생 추진의달 입니다

나가노현에 거주중인 외국인인 2022 년 12 월 시점 38,101 명 입니다.
 나가노현에서는 다문화 공생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7 월을 「다문화 공생 추진의달」 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이 지역을 일구어나가는 파트너로서
 함께 배워나가고 함께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다문화 공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이번달 다문화 공생 추진의달 포스터입니다.
 현청내와 지역 공공기관, 대학교등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중 헬멧 착용을 권고합니다

2023 년 4 월 1 일부터 자전거 이용중 헬멧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권고사항이란

법령상 「~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라고 지정된 의무사항
 입니다. 범칙금이나 강제력 없이 이용자 본인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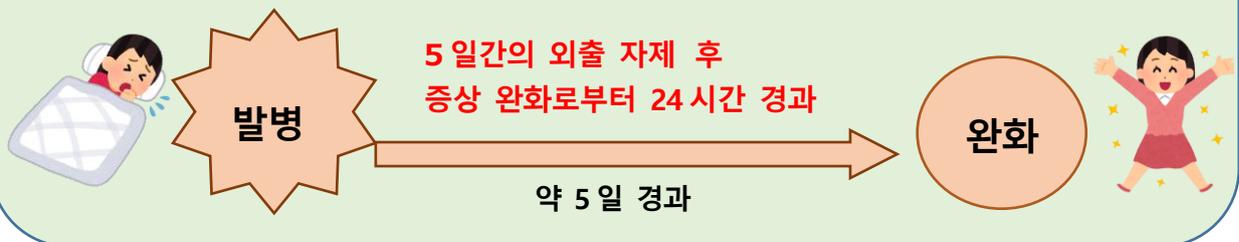
나가노현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약 48%가 두부에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또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은 착용시에 비해 약 2 배로 증가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헬멧을 착용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 년 5 월 8 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점~

- 양성자에 관해 법률에 근거한 자가격리 요구가 사라졌습니다.
 ⇒ 증상 발생 후 5 일간은 외출을 삼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보건소에 따른 밀접접촉자 선정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인 등의 외출 자제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조심하며 일상을 지켜나갑시다.

